

아프리카 가나의 상징철학 ‘아딘크라(Adinkra)’

- 아딘크라 심벌을 통한 사유체계의 확장성 탐구

조 지 숙
(경희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가나의 심벌 ‘아딘크라(Adinkra)’를 소개하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사유의 확장, 다시 말해서 세계관, 가치관, 일상적 삶에서 형성되는 철학 등에서 나타나는 사유의 확장성을 보고자 함에 있다.

‘아딘크라(Adinkra)’는 일종의 심벌로 그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아칸족 아산티 왕국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딘크라’는 기야만의 왕이었던 나나 코피 아딘크라(Nana kofi Adinkra)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그 의미는 ‘딘크라’는 ‘이별하다’, ‘작별하다’ 혹은 ‘이별을 고하다’로, 이러한 의미 때문인지 아딘크라 모티브가 새겨진 천으로 만든 의상들은 장례식복장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딘크라 심벌들은 장례식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모티브와 의미로 인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프리카 대륙은 물론 여러 다른 대륙의 국가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일찍이 아딘크라의 창조적인 독특함과 그 진화과정 그리고 확장의 가능성을 간파한 아딘크라 사전의 편찬자인 브루스 윌리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아딘크라 스토리는 진화중이고 전개 중이다. 나는 여러분의 안내자로 나와 함께 여러분이 이 여행을 즐기기를 바라고 그 전개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윌리스의 바람대로 아딘크라 심벌은 그의 저서 이후 또 다시 다른 저서가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그 활용에 있어서는 쉽 없는 전개와 진화 그리고 확장을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아딘크라 심벌의 의미와 그 내용의

발견, 그리고 분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주제어 : 가나, 브루스 윌리스, 아딘크라, 심벌, 아칸

I. 들어가면서

‘아딘크라(Adinkra)’¹⁾는 일종의 심벌로, 오늘날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의 옛 왕국 기야만(Gyaman)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아칸족 아산티 왕국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딘크라’는 기야만의 왕이었던 나나 코피 아딘크라(Nana kofi Adinkra)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딘크라’는 ‘이별하다’, ‘작별하다’ 혹은 ‘이별을 고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의미 때문인지 아딘크라 모티프가 새겨진 천으로 만든 의상들은 장례식복장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²⁾

1) 본 연구에서는 ‘아딘크라’를 ‘아딘크라’ 혹은 ‘아딘크라 심벌’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아딘크라라는 아딘크라 심벌이 찍힌 직물을 일컫고, 그 직물에 찍힌 그 심벌들을 아딘크라 심벌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혼용되어 사용된다.

2) Bruce W. Willis, *The Adinkra Dictionary, The Pyramid Complex*, 1998, p.25 참조.

“Funerals are significant in the religious and social lives of the Akan people. They are the final rites of passage from the world of the living to that of the “dead”. Among the Akan, death is only one more transition stage in one’s life. In the afterlife, those who have lived exemplary lives will continue to “live” in a new world and enjoy a place close to Onyankopon, the Supreme Being. In funeral rites, all the elements of the Akan world view come into play. The moment of death is also moment of birth. Hence the paradox of “tears and laughter” that characterize most Akan funerals. Funeral rituals refl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between life and the afterlife. 장례식은 아칸족들의 종교와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 중요하다. 장례식은 ‘생명’의 세상에서 ‘죽음’ 세상으로의 마지막 통과의례다. 아칸족들 사이에서, 죽음이란 삶의 무대를 한 번 더 이행하는 것일 뿐이다. 사후세상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던 자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고 최고의 존재인 ‘오냐코폰 Onyankopon’과 아주 가까운 장소에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장례식에는 아칸인들의 세계관의 모든 요소들이 개입된다. 죽음의 순간은 또한 탄생의 순간이다. 이러한 이유로 “눈물과 웃음”의 역설은 대부분의 아칸 장례식을 특징 짓는다. 장례식은

그러나 아딘크라 심벌들은 장례식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모티브와 의미로 인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프리카 대륙은 물론 여러 다른 대륙의 국가들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아딘크라 심벌에 대한 최초의 저서는 1998년 예술가인 브루스 윌리스(W. Bruce Willis)가 출판한 아딘크라 사전이다. 예술가인 그는 오랜 시간 가나에 체류하면서 구전자료를 모으며 아딘크라에 대한 사전을 편찬하기에 이른다.

Being an artiste, I[W. Bruce Willis] included close to six hundred original drawings, illustration, charts and maps.

It tooks close to six years to compile this information. On many occassions it was a difficult task because about one-half of the book had to be taken from oral tradition. That means I had to interview Akan elders(elders were found to be more reliable sources than others)who recited oral accounts of the past history of the Akan people. It was quite interesting and fulfilling but that portion of my research alone took over three years.

예술가인 나[브루스 윌리스]는 600여개의 원화들, 삽화, 도표, 지도들을 포함시켰다. 이 정보를 모으는데 6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 여러모로 힘든 작업이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반은 구전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칸의 원로(이 원로들은 믿을 만한 근거자료를 발굴했다)들을 인터뷰해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로들은 아칸 민족에 대한 과거 역사에 대해 구두로 된 이야기들을 암송했다. 이는 꽤 흥미롭고 성취감도 있는 작업이었지만, 연구의 부분이었음에도, 3년 이상이 걸렸다.³⁾

윌리스의 고백대로 아딘크라 연구에 있어서 저자 윌리스의 노력은 대단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 그리고 생(生)과 사후사이의 관계를 반영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딘크라가 문양이 장례식복장에서 흔히 쓰인다고 해서 그 심벌을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미지로만 볼 수 없다. 아칸족들의 장례식은 ‘죽음’, ‘이별’의 슬픔만이 아니라 ‘탄생’, ‘최고신의 곁에서의 새로운 삶’의 기쁨도 아우르기 때문에, 아딘크라 심벌은 죽음의 의식에서도 또한 일상적 삶에서도 두루 쓰일 수가 있다.

3) *Ibid.*, ch.8.

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딘크라라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아딘크라 심벌은 여전히 진화중이며 확장 중이다(Adinkra is ever-evolving and it is constantly expanding)”⁴⁾라는 말로 저자는 아딘크라 연구의 가능성과 무한함 그리고 그 가치를 유보하며, 인정한다.

그런데 아직도 아딘크라와 관련된 저서는 브루스 윌리스 이후, 2014년 『아딘크라 해네, 모든 심벌의 왕 ADINKRAHENE, King of all the symbols』⁵⁾이 출판되기는 했지만 56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딘크라라는 가나는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다채롭고, 풍부한 철학적, 교육적, 역사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보고(寶庫)임에도 불구하고 진화와 확장 그리고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우선 이러한 아딘크라를 소개하는 브루스 윌리스의 『아딘크라 사전The Adinkra Dictionary』을 기본으로, 그 외 아딘크라 관련 자료들을 비교·분석·정리하여 아딘크라 심벌의 여러 의미들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한다.

또한 아딘크라의 소개를 통해 아프리카 가나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사유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딘크라라는 구술문화에서 탄생한 심벌이다. 구술문화에는 텍스트가 없다.⁶⁾ “일차적인 구술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즉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쓰는 일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연구’하지 않더라도, 많은 것을 배우고 대단한 지혜를 실천적으로 행한다.”⁷⁾ 따라서 아딘크라 심벌의 경험적 지혜는 오히려 문자로 고착된 지식보다 더 일반적이고 확장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지혜와 사유의 확장성을 추적하고,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아딘크라의 종류와 그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4) *Ibid.*, ch.8.

5) Michael Ofori-Mankata, *ADINKRAHENE, King of all the Symbols*, Ansa reads LLC, 2014.

6) 월터 J.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 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2009, 57쪽.

7) 앞의 책, 19쪽.

II. 아딘크라의 종류와 형성과정

가나에는 400개의 아딘크라 심벌이 있지만 현재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고, 브루스 윌리스의 저서를 비롯해서, 그 후 출판되어 나온 상징관련 저서에도 현재 60여개정도가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⁸⁾ 그러나 이 외에도 그 의미를

8) Heike Owuse, *Les Symboles des Africains*, Éditions Guy Tredaniel, 1999, p.205.

“Les symboles Adinkra des Ashantis du Ghana, qui sont présentés dans les pages suivantes, sont intemporels et toujours en usage. Des avis contraires existent quant à leur origine et quant à leur âge. La dénomination "Adinkra" trouve probablement son origine dans le mot "Dinkra" du langage Akan que parlent aussi les Ashantis et qui signifie à peu près "être séparé", "prendre congé" ou encore "dire adieu". Car les étoffes imprimées avec des motifs Adinkra sont souvent utilisées lors des cérémonies funéraires. Il existe quelques 400 symboles de ce type au Ghana, mais leur signification n'est à présent souvent plus connue de personne. En règle générale, il s'agit de représentations stylisées d'objets, de plantes, d'animaux, de formes naturelles, de coiffures ou de bâtiments. Beaucoup de ces motifs ont en commun une forme fondamentale, seules quelques différences permettent ensuite d'obtenir un changement de signification. Les motifs Adinkra ont souvent été employés comme porteurs de certains messages ainsi que dans l'art, comme décoration des murs et pour imprimer des tissus. Ils reflètent aussi souvent des proverbes qui jouent un rôle très important dans la vie quotidienne des Ashantis et en disent long sur leurs valeurs philosophiques et morales.

Dans le chapitre suivant, vous trouverez 62 des symboles Adinkra parmi les plus connus et toujours utilisés de nos jours.

가나의 아산티족의 심벌 아딘크라라는 시간을 초월하며 여전히 사용된다. 그런데 그 기원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 ‘아딘크라’라는 명칭은 아마도 아칸 언어인 ‘딘크라’라는 단어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아칸족이란 또한 아산티를 말하기도 한다. 그 의미는 대략 ‘이별하다’, ‘작별하다’ 혹은 ‘이별을 고하다’를 의미한다. 아딘크라 모티브가 새겨진 천들은 흔히 장례식 때 사용되기 때문이다. 가나에는 400개의 아딘크라 심벌이 있지만 현재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다. 대체로, 사물, 식물, 동물, 자연의 모습, 머리모양 혹은 건물들의 도안화된 기호(그림)들과 관련되어 있다. 많은 이 모티브들은 공통적으로 기본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 단지 몇 개의 차이점들은 의미의 변화를 얻도록 해준다. 아딘크라 모티브들은 예술에서처럼 어떤 메시지의 전달자로, 벽의 장식으로 그리고 천에 날염으로 사용된다. 그 모티브들은 또한 속담들도 반영하고 있는데 아산티족의 일상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들의 철학적 그리고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발견할 수 있는 아딘크라 심벌은 훨씬 더 많으며, 이를 추가·정리⁹⁾하는 것이 이 논문 이후의 작업이 될 것이다.

아딘크라 심벌은 인간, 일상적 생활이나 물건, 동물, 신화 혹은 전설 등을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기원이 되는 대상과 그 형성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그 유래를 인물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아진다우루(Agyindawuru)’가 그 예다.



‘아진다우루(Agyindawuru)’는 의무, 기민함, 복종, 그리고 신뢰와 덕 있는 사람의 속성을 상징한다. 아산티의 왕에게는 ‘아진(Agyin)’이라는 충실한 하인이 있었다. 아딘크라 심벌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 하인의 충성심은 대단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아딘크라 심벌은 곤충에게도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그리스·로마신화에도 등장하는 ‘거미’가 그 예인데, 차이점은 그리스·로마신화에서 ‘거미’는 교만하여 신의 노여움으로 거미가 된 여성으로, 부정적 이미지이지만, 아칸족 신화¹⁰⁾에서 거미는 ‘남성’이며, ‘영웅’,

다음의 장에서 당신은 가장 유명하고 오늘날 까지도 여전히 사용되는 아딘크라 심벌 62개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아딘크라 심벌이 400여개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500여개가 넘는 심벌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 숫자도 명확하지 않다. 이는 자료 수집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구전문화가 지닌 취약점이라 하겠다.

9) 60여개의 아딘크라 심벌을 포함, 현재 144개의 심벌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10) 홍명희 외, 『아프리카의 신화와 전설-서부 아프리카편』, 다사랑, 2016, 20쪽. ‘아난시’는 수많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데, 어떤 이야기에서는 태양과 달,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들어 낸 창조신으로, 다른 이야기에서는 인간에게 농업을 가르쳐준 기술의 신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난시의 모습은 신이러기보다는 교활하고, 비열한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 혹은 거미의 모습으로서의 아난시이다. 처음에 아난시는 인간이었다가 거미가 되었다고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 아난시의 전형적인 모습은 남을 속이는 사기꾼으로서의 모습이다. 마무어(語)로 ‘거미’라는 뜻의 아난시는 가나의 아산티족의 전래 이야기에 처음 등장한다. 아난시 이야기는 아프리카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19세기 아프리카인들의 이주에 따라 카리브 해 지역, 수리남,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등으로 퍼져나갔다. 현재 사기꾼 아난시 캐릭터는 서부 아프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 민담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의 하나이며, 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소재로 차용되기도 한다. 지역별 버전에 따라 ‘아나즈(Anase)’, ‘케쿠 아나즈(Kweku Ananse)’, ‘아난시(Anancy)’, ‘난지(Nanzi)’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넌시 이모’라는 친근한

‘지혜’, ‘창조’를 상징하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거미 상징 심벌을 ‘아난세 은토은탄(Ananse ntontan)’이라고 한다.



아난세 은토은탄

아난세(아난시)는 거미를 의미하며, 거미는 아칸 전통에서 영웅이다. 거미는 아프리카 설화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곤충이다. 아주 작은 곤충임에도 불구하고 거미는 넓고 섬세한 거미집을 짤 수 있다. 이 기발한 거미집으로 거미들은 다른 곤충들을 잡거나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 작은 거미는 지혜와 혹은 간사함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딘크라에 대한 두 가지의 예만을 통해서도, 아딘크라 심벌은 역사적 이야기 혹은 신화나 전설, 인간, 곤충에까지 범위를 가리지 않고 상징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대상들에게 아프리카인들은 인간과 동일한 인격과 개성을 부여하면서, 친근함과 경외심을 보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아딘크라 심벌들을 예로 들어, 이에 대한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의미를 크게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해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로는 신과 권력자와 관련된 아딘크라, 두 번째로는 도덕적이거나 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는 아딘크라, 세 번째로는 사랑과 우정을 나타내는 아딘크라, 네 번째로는 죽음과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삶의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아딘크라로 나누어 볼 것이다.

III. 아딘크라의 의미

아딘크라 심벌의 의미의 기준을 네 가지로 분류한 까닭은, 이 네 가지 의미군이 아딘크라 심벌이 나타내는 상징들의 주된 흐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 신과 권력자의 아딘크라 분류를 통해서만 아칸족의 ‘민주주의’

표현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아난시의 이야기는 주로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비도덕적인 일을 하도록 사주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 이익을 취하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시도들은 대개 실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인생의 교훈을 준다.

정치형태와 사상과 신화를, 두 번째와 세 번째, 도덕과 교육, 사랑과 우정 그리고 네 번째, 인생과 관련된 아딘크라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철학과 세계관을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제라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1. 신 혹은 권력자와 관련된 아딘크라 심벌

심벌	이름	의미
① 	아딘크라헤네 Adinkrahene	고귀함/왕족
② 	아딘크라헤네 뒤아 Adinkrahene Dua	고귀함/왕족
③ 	제 은야메 Gye Nyame	신의 불멸성/전지전능
④ 	아야 Aya	저항/참을성/대담함
⑤ 	오냐코폰 아니와 Onyakopon aniwa	신의 편재

〈표1〉11)

11) 본 장에 소개한 아딘크라 표는 브루스 윌리스의 『아딘크라 사전*The Adinkra Dictionary*』와 아딘크라 관련 사이트(<http://adinkra.lassanay.net/> 외) 등의 자료들

① ‘아딘크라헤네(Adinkrahene)’는 아딘크라 최고의 심벌로, 최고 의전을 의미한다. 혹은 왕위의 영원성을 뜻한다.

② ‘아딘크라헤네 뒤아(Adinkrahene Dua)’도 역시 아딘크라헤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직물 문양에서만 쓰인다. ‘아딘크라헤네 뒤아’는 ‘아딘크라헤네’의 파생 심벌로, 이 두 상징의 예는 만일 필요하다면, 파생 심벌의 형성은 아딘크라 어느 심벌에 있어서나 생성가능하다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아딘크라 심벌은 고착화되어 있거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다층적이다. 따라서 그 심벌의 상징적 의미와 정의는 변화될 수 있고, 또 몇 가지 버전으로 상징화될 수 있다.

③ ‘제 은야메(Gye Nyame)¹²⁾를 아칸인들은 몇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우선 ‘gye’는 ‘except’, ‘Nyame’는 ‘god’로, ‘신을 제외하고,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Except God, I fear none)’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신이 어디에도 편재하며, 전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넘어서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각주 10)에서 소개한 ‘아난시’는 하늘의 신인 ‘은야메’의 아들 중 하나라고 전해진다.¹³⁾

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The Adinkra Dictionary*는 이하 A.D.라 표기한다.)

12) 홍명희 외, 앞의 책, 17쪽 참조.

‘은야메’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신화가 있다.

‘오도만코모’는 아산티 신화 중 만물의 최고신이자 창조신이다.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은 모두 그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주를 만들고 나서 그는 죽게 된다. 오도만코모는 원래 불멸의 존재였지만 죽음이 그의 영생의 능력을 빼앗아 간 것이다. 자신이 만든 우주를 대신 통치인을 찾던 오도만코모는 죽기 직전 극적으로 ‘은야메’에게 우주의 통치를 맡기게 된다.

은야메는 죽어가던 오도만코모에 의해서 마지막 순간에 우주의 지배를 위해 소환되었다. 그는 아산티 신화에 등장하는 실질적인 ‘신’이다. 은야메는 어디에나 있으며 자신은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그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므로, 그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람과 접촉을 해야 한다. 아산티족은 바람을 자주 대하다 보면, 어쩌면 바람이 그를 만나게 해 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13) 아프리카 각 종족은 그 종족들만의 창조신화가 존재한다. 그런데 한 종족의 신화가 아프리카 대륙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도, 혹은 같은 신이 이름만 달리하여 등장하기도 하는데, 어느 한 종족이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④ ‘아야Aya’ 심벌은 편(fern : 양치식물)을 상징화한 것으로, 이 식물은 바위가 많은 지대에서 자란다. 따라서 식물 편은 거칠고 강인한 식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아야’는 역경과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대담하고 강인한 성격을 의미함으로, 아칸족은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번창한 자신의 민족을 이 식물의 특성에 비유하고 있다. 또한 ‘아야’는 흔히 왕들이 사용하던 심벌이었다. 왕들은 대담무쌍과 독립의 표현으로 ‘아야’ 심벌이 새겨진 옷을 입었다고 한다. ‘아야’ 혹은 ‘편’ 문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는 독립적이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⑤ ‘오냐코폰 아니와(Onyakoponi aniwa)’은 신의 눈을 상징화한 것으로, “신의 눈은 모든 비밀을 본다”는 신의 편재를 보여준다.

아딘크라에서는 특히 ‘왕’과 ‘권력’ 그리고 ‘신’과 관련된 심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아칸족들의 왕 중심의 사회체제와 다신교를 숭상하는 종교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심벌 ‘푼툼푸나푸덴켄푸나푸(Funtumfunafu denkyemfunafu)’ 혹은







‘푼은툼미래쿠(Funntunmireku)’¹⁴⁾처럼 민주주의를 대 표하고, 다수의 의견에 대한 존중과 관련된 심벌도 다수 발견됨으로써, 아칸족의 왕권 혹은 신권은 절대권 혹은 독재의 형태가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양태로 존재했음을 알 수도 있다. 하지만 또한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종족 간의 서로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의 근본적 차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칸인들은 이 심벌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라는 대륙의 특수성에 기인할 것이다. 5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륙 아프리카는 국가보다는 종족으로 더 오래 동안 존재해왔고, 이에 종족간의 공통점, 즉 신화는 물론 심벌까지도 국경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아칸의 심벌은 가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국경을 넘어선다.

14) 이 심벌은 ‘배가 붙어 있는 삼쌍둥이 악어’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상징화한 다. 즉 “그들은 같은 배를 공유하지만 배고픔을 잊기 위해 싸운다(They share one stomach and yet they fight forgetting food)”라는 의미를 지닌다. 역으로 설명하자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도덕적 가르침 혹은 교훈을 담고 있는 아딘크라 심벌

심벌	이름	의미
① 	쿤틴칸탄 Kuntinkantan	겸손과 봉사의 필요/겸허
② 	아코코 난 Akoko nan	부모의 마음 보살핌 애정 보호 꾸짖음은 아이를 망치지 않는다.
③ 	산코파 Sankofa	당신은 당신의 잘못을 늘 고칠 수 있다. 지혜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과거 경험을 이용하기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늦는 것이 낫다.
④ 	드완님멘 Dwannimmen	겸허와 강인함 지혜와 배움
⑤ 	네아 오페 세 느크로 포오 예마 요 노, 예 사아 아라 마 온 Nea ope se nkrofoo yema wo no, ye saa ara ma won.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대로 남에게 행하라.

〈표2〉

① ‘쿤툰칸탄(Kuntunkantan)’은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는 심벌이다. “나는 뽐내지 않는다(I do no boast)”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② ‘아코코 난’은 암탉의 발을 형상화한 것으로, 표에서 보듯 ‘부모의 마음’을 나타낸다. 아프리카에는 ‘암탉은 병아리들을 밟지 않도록 조심해서 걷기 때문에 자기 병아리들을 죽이지 않는다(The hen treads upon its chicks but it does not intend to kill them)’라는 속담이 있다. ‘아코코 난’ 심벌은 바로 이러한 암탉의 모성 본능을 표현한 것이다.



산코파






③ ‘산코파(Sankofa)’는 ‘산코파 새’에서 그 이미지를 따왔다. ‘Sankofa’에서 ‘san’은 ‘to return’을 ‘ko’는 ‘to go’, ‘fa’는 ‘to take, to seize’를 의미한다. 산코파는 아프리카 대륙이 독립한 후 수십 년에 걸쳐 아프리카인들이 경험해 온 정신적·문화적 자각을 상징한다. 이 심벌에서 산코파새는 머리를 뒤로 돌리고 긴 부리를 꼬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아칸인들은 산코파 새의 이러한 행동을 지식을 탐구하거나 혹은 과거를 반추하는 모습을 상징화하는데 사용한 것이라 하겠다.

④ ‘드완넴멘(Dwennimmen)’에서 ‘odwennini’은 ‘숫양’을 ‘mmen’은 ‘뿔’을 형상화한 것이다. 아칸족은 숫양을 매우 우아하면서도 멋진 뿔을 갖고 있는 강한 동물로 여긴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숫양의 뿔이란 보호와 생존을 의미한다. 대체로 아칸족이 ‘강인함(strength)’을 언급할 때 육체의 강인함은 물론 마음과 영혼의 강인함까지도 포괄한다. 아칸족이 ‘마음(mind)’과 ‘영혼(soul)’이라 할 때 ‘마음’은 산 사람에, ‘영혼’은 죽은 자에 속하는 개념일 것이다.

⑤ ‘네아 오페 세 느크로포오 예마 요 노, 예 사아 아라 마 온 (Nea ope se nkrofoo yema wo no, ye saa ara ma won)’는 ‘Do unto others what you want others to do unto you’라는 성서구절을 의미하는 상징이다.¹⁵⁾

15) 사실 아딘크라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라고 하지만 그 형성 시기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아딘크라가 먼저인지 성서가 먼저인지 혹은 기독교가 전파된 후에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시기를 논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의미가 없는 듯하다. 사유체계를 심벌로 상징화한 아칸족의 독창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3. 사랑과 우정의 의미의 아딘크라 심벌

심벌	이름	의미
	아코마 Akoma	인내 참을성 사랑과 신뢰
	오스람 네 은소로마 Osram ne Nsoroma	사랑 충실함 도타운 사랑
	오도 네라 피에 칸 Odo nyera fie kwan	사랑은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랑의 축복
	케테 파 Kete pa	좋은 잠자리 좋은 결혼 사랑과 신뢰
	에세 네 테크레마 Ese ne tekrama	우정 상호의존 진보 발전 통합의 힘

〈표3〉

① ‘아코마(Akoma)’는 육체의 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심장을 말한다. 만일 아칸 사람이 누군가에 'M' akoma wo wa mu.(내 심장은 네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를 의미하는 것이다. 'Aka me akoma(또는 aka m'akoma)'라는 의미는 어떤 특정한 디자인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② ‘오스람 네 은소로마(Osram ne Nsoroma)’는 ‘달과 별’을 상징한다. 흔히 ‘달’은 여성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오스람 네 은소로마는 여성이 지녀야 할 여러 덕목 중에서 ‘신중함(prudence)’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스람 네 은소



로마는 다른 아딘크라 상징 ‘오스람(Osram)’의 파생 심벌이기도 한데, 오스람은 단지 ‘달’만을 상징한다고 할 때, 오스람 네 은소로마는 ‘별’을 덧붙여 남성과 여성 사이의 ‘조화로움’을 이야기한다고 하겠다. 이때 ‘오스람’은 ‘인내심(patience)’, ‘이해심(understanding)’, 혹은 ‘신뢰(faith)’를 의미한다. 이때 아칸인들이 말하는 ‘신뢰’란 ‘희망’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다. 또 아칸족들이 말하는 ‘인내심’에는 ‘신뢰, 희망, 지혜, 사랑’ 등이 내포되어 있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③ ‘오도 네라 피에 콰(Odo nyera fie kwan)’은 우선 아칸의 속담으로 설명 가능하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는 길을 잃지 않는다(a loved one does not get lost on the way to a loved one’s home).”

‘odo’는 ‘사랑(love)’, ‘nnyew(nyera)’는 ‘결코 잃지 않는다(never loses)’, ‘fie’는 ‘집(home)’, ‘okwam(kwam)’은 ‘길(path)’을 의미한다. 따라서 “Odo nyew fie kwam”은 “사랑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결코 잃지 않는다”로 해석된다. 이 심벌은 ‘헌신(devotion)’을 뜻하기도 하는데, 아칸족에게 ‘헌신’은 부부 혹은 연인사이의 강한 유대감까지 내포하는 개념이다.

④ ‘케테 파(Kete pa)’는 그대로 잘 때 사용하는 이부자리에서 그 이미지를 가져온 듯하다. 일상용품에서 그대로 그 형상을 따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만든 아딘크라 심벌의 예라 할 수 있다.

⑤ ‘에세 네 테크레마(Ese ne tekrama)’에서 ‘tekrama’는 ‘혀’를 ‘se’는 이(치아), 따라서 이는 ‘혀와 치아’를 뜻한다. 특히 이것은 아이의 치아의 모양을 형상한 것이다. 아칸 사회에서 아이의 치아 모양은 아이의 발전에 있어 진보의 표시다. 치아는 성장의 표시인 것이다. 개인의 성장과 향상은 아프리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아칸족들의 아딘크라 심벌은 문자로 된 언어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변화와 확대가 가능한 ‘내연(connotation)’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문자 언어’로는 장황하게 표현해야 하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아딘크라는 단 하나의 심벌로 나타내며 ‘상징 언어’¹⁶⁾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심벌이 문자 언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의 범주보다 유연하며, 아딘크라 심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심벌들이 지니고 있는 흥미롭고 독특한 특징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인생을 의미하는 아딘크라 심벌

심벌	이름	의미
 ①	파판토 Fafanto	다정함 온화함
 ②	오우 아트웨데에 Owuo Atwedee	죽음, 인간의 궁극적 숙명 반드시 죽는 인간의 본질
 ③	파요후디에 Fawohudie	자유
 ④	크라모보네 Kramobone	위선에 대한 경고
 ⑤	은퀸킴 (Nkyinkyim)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자주성 강인함 적응 단호함

〈표4〉

- 16)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범주에 있어서 문자를 ‘문자 언어’로 심벌을 ‘상징 언어’로 칭하고자 한다. 심벌도 일종의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된 바, 넓은 의미에서 언어로의 기능을 획득하고 있고,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사유세계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징 언어’라는 표현은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적으로 사용함을 밝힌다.

① '파판토(Fafanto)(나비)'는 아칸족에게 상냥함과 부드러움, 아름다움과 연약함을 상징한다. 나비는 아무리 우아하지만 연약하다. 따라서 아칸족은 흔히 인간을 이러한 연약한 나비에 비유한다. 아칸에는 이와 관련된 속담이 있다. “나비는 야자술 단지 주변을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마실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살 여유가 없기 때문에(The butterfly may be fluttering around a pot of palm wine, but will not drink it, for it cannot afford to buy).” 그런데 이 속담을 아칸인들은 단지 술을 살 돈이 없어서 마시지 못한다는 의미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술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러 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② ‘오우 아트웨데에(Owuo Atwedee)’는 ‘죽음의 사다리(the ladder of death)’를 뜻한다. 사다리의 각 단은 인생의 무대를 의미한다. 죽음은 바로 사다리의 마지막 단이다. 그렇지만 죽음은 아칸인들을 비롯해서 대부분 아프리카 종교에서는 하나의 삶에서 다른 삶으로의 이동을 뜻한다.¹⁷⁾ 특히 “아칸족의 우주론에서 죽음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사이의, 현재와 미래 사이의 공간이며, 육체의 죽음은 존재의 마지막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본질적으로 압축된 정령이기 때문”¹⁸⁾이다.



파요후디에

③ ‘파요후디에(Fawohudie)’는 ‘Fawohodie’라고도 쓴다. 사실 아딘크라 심벌은 표기법이 약간씩 다른 것들이 있다. 이는 그 기원이나 유래가 정확하지 않고, 또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심벌의 명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할 부분일 것¹⁹⁾이다. 파요후디에는 그 문양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심벌이

17) A.D., p.183.

“Death is the transition from one life to the next. In most African religions, when a person dies it is believed that he or she continues to live on in the hereafter, commonly referred to as the spirit world.”

18) *Ibid.*, p.183.

“In Akan cosmology, death is the space between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between the present and future. To the Akan, physical death is not the end of existence because the human body is in essence an encapsulated spirit.”

19) *Ibid.*, ch.8. 참조.

그나마 책으로 출판된 유일한 아딘크라에 대한 유일한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윌리스

어디서 유래한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아직은 덧붙일 수가 없다. 이처럼 아딘크라의 연구가 계속되어야하고 아직도 진행 중 이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④ 본래 ‘크라무 보노(보네) 아마 예아누 크라모 파(Kramo Bone amma yeanhu kramo pa)’는 이름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긴 이름을 지닌 아딘크라다. 이는 “가짜 무슬림과 진짜 무슬림은 위선적이라는 것에서 닮아 있다(The fake muslim and the genuine one look alike because of hypocrisy)”²⁰⁾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우리는 진실 밖에서 더 나은 것을 배운다(We learn better out of truth)”인 아칸 속담과 관련된다. 특히하게도 이 심벌은 특정한 종교를 빗대어 상징화된 아딘크라다. 실상 그 의미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특정 종교를 나타내거나 혹은 언급하는 것은 아딘크라에서는 드문 예라 할 수 있다.²¹⁾

⑤ ‘은퀸킴(Nkyinkyim)’은 꼬여있는 끈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여러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적응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강인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는 융통성 없이 그저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지를 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형태에 따라 적절하고 지혜롭게 전략을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는 유연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아칸족들은 특히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이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지닌 인간에 대해 특별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보이는 종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는 아칸족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심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칸족의 독특함은 ‘슬기로우음’ 혹은 ‘지혜’에 대한 예찬이다. 아딘크라 심벌에서는 ‘지식’에 대한 상징을 발견하기 힘들다. 이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지혜’가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었음을

의 저서에서도 저자 윌리스는 자신의 책이 “아딘크라 주제에 관한 확정적인 논문이 아니다(It is not written as a definitive treatise on the subject of adinkra)”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연구를 유보하고 있다.

20) *Ibid.*, p.120.

21) 가나는 기독교인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이슬람교도는 16%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심벌은 가나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만들어진 아딘크라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아딘크라 심벌을 네 개의 범주로 분류해 보았다. 이 아딘크라 심벌은 이보다 더 많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범주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시도는 아딘크라 심벌자체가 지닌 유연함과 변화의 가능성은 물론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체계에서의 확장성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 특히 부르키나파소의 모시족을 중심으로 ‘무문자 사회’를 연구한 가와다 준조는 “본인이 통산 17년에 가까운 모시사회의 필드워크에서 얻은 자료들과 비교할 때, 구연전승의 역사나 무문자성에 관한 한 비견될 만한 자료를 서아프리카의 다른 사회에서는 거의 얻기 힘들었다”²²⁾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성급한 결론인 듯하다. 이유는 아칸족의 아딘크라라는 구연전승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무문자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문자 사회에서는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가와다 준조가 주장하는 ‘소리’ 외에 아딘크라와 같은 문양도 존재한다. 가와다 준조도 의미 전달 수단으로의 도형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문자의 하한으로 상정하고 문자의 범주로 넣고자 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도형은 명백히 상형문자와는 다르다. 도형은 도형으로만 머물러 있을 뿐, 문자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는 상형문자 표시의 실례가 거의 없다”는 결론²³⁾에서처럼 아프리카의 여러 도형들은 문자와 같은 연속관계로 놓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딘크라 심벌은 도형에 속해지만 단순한 의미전달의 수단을 넘어서서, 아칸족들의, 더 넓게는 아프리카인들의 철학과 삶의 고뇌와 성찰을 엿볼 수 있는 언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문자 언어가 갖는 역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문자와는 변별되는 기록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아딘크라 심벌의 의미의 확장성, 그리고 아딘크라가 일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예를 보고, 결론에 가서 그 활용 방안과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2) 가와다 준조, 『무문자 사회의 역사-서아프리카 모시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경택 역, 논형, 2004, 15쪽.

23) 앞의 책, 각주3 참조, 31쪽.

IV. 아딘크라 심벌의 의미의 확장성과 그 활용

아딘크라 심벌이 지닌 의미들은 순수하게 구두로 전해진 것이다. “순수하게 구두로 전해져 온 유산, 이를테면 입으로 전해진 전설, 격언, 기도의 말, 공식적인 언어 표현 같은 것, 또는 그 밖의 구전작품, 예컨대 북미의 라코다시 오인이나 서아프리카의 만딩고인 또는 호메로스 시대의 그리스인의 구전 작품에서 ‘문학’에 필적할 만한 만족스런 용어나 개념이 없다.”²⁴⁾ 아딘크라 심벌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 속하는 구전작품이다. 아딘크라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설, 격언, 속담 등이 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학에 필적할 만한 용어나 개념이 없다”라는 정의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딘크라 심벌은 ‘쓰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명백히 그 자체로 용어와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말(words)은 구술적인 말하기(speech)에 기초를 두지만, 쓰기는 그 말을 역지로 시각적인 장(場) 안에 영구히 고정해버린다”²⁵⁾고 하지만 아딘크라라는 ‘이미지’와 ‘구술’로 이루어지고 후에 ‘쓰기’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고정된 개념으로 고착되지 않았다. 즉 아딘크라의 개념이나 용어는 영구히 고정되지 않고, 오히려 파생하거나 확장된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아딘크라 심벌의 의미의 확장성

아딘크라 심벌은 구술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 범주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 구술이전에 ‘이미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즉 아딘크라라는 ‘이미지’와 ‘구술’ 그리고 후에 ‘문자표기’로 이루어진 사유체계라 하겠다. 따라서 아딘크라라는 그 세 가지 사유방법이 갖는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구술문화가 갖는 ‘코피아(copia)’²⁶⁾, 즉 거칠거나 장황스런 말투, 다변을 촉발하지는 않는다. 아딘크라에 ‘코피아’가 부재하는 이유는 기억을 위해 소리 내어 되풀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심벌은 모든 의미를 함축적으로

24) 윌터 J. 옹, 앞의 책, 22쪽.

25) 앞의 책, 24쪽.

26) 앞의 책, 68쪽.

지니고 있고, 그러므로 역으로 심벌의 이미지를 통한 연상 작용으로 의미의 유추와 설명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3장에서 아딘크라의 여러 예들을 통해 살펴본 바, 본 장에서는 그 의미의 확장성에 주목하기로 한다.



오쿠아포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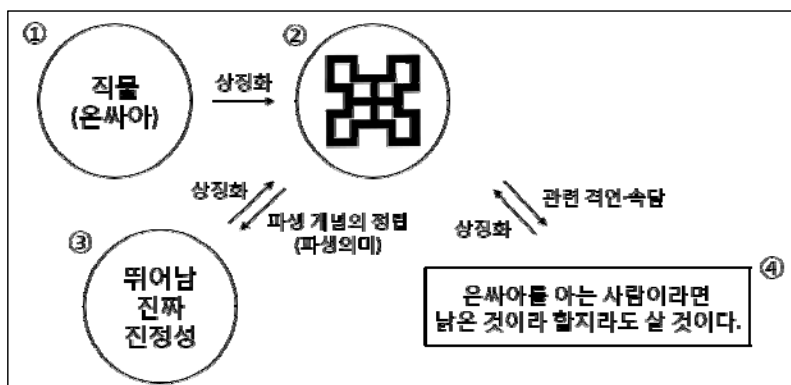
첫 번째로 ‘오쿠아포 파(Okuafop pa)’를 예로 들자면, 이는 ‘좋은 농부(Good farmer)’를 의미한다. 일차적으로는 ‘농부’지만, 그 파생된 의미로는 ‘힘든 일(hard work)’,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근면 혹은 산업(industry)’, 그리고 ‘생산성(productivity)’ 등 다양한 개념들로 확장된다. ‘힘든 일’은 ‘농부’를 통해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미로 이어질 수 있으나, ‘기업가 정신’, ‘산업’ 등은 근대화와 더불어 ‘경제’의 개념의 범주에서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은 심벌 ‘오쿠아포 파’가 ‘경제’ 범주와 관련된 또 다른 의미로 확장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더불어 ‘오쿠아포 파’는 “선량하고 근면한 농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의 농장이 아무리 크더라도 당신은 그 모든 농지를 돌보아야 한다(The good and industrious farmer says : No matter how big your farm is you tend it all)”는 격언에도 관여한다.



은싸아

두 번째 예로는 ‘은싸아(Nssa)’로, 이는 손으로 짠 직물인 담요의 이름이기도 하며 아딘크라 심벌의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되었다. 즉 일상용품인 직물 ‘은싸아’를 그대로 상징화한 것이다. ‘은싸아’는 ‘뛰어남(Excellence)’, ‘진짜(Authenticity)’, ‘진정성(Genuineness)’ 등을 의미한다. ‘은싸아’와 관련하여 “은싸아 담요를 아는 사람이라면 낡은 것이라 할지라도 살 것이다(The one who knows the nssa blanket is willing to buy it even when it is old)”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은싸아’가 매우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은싸아’를 직조하는 장인의 솜씨와 그 결과물인 ‘은싸아’를 통해 ‘뛰어남’, ‘진짜’, ‘진정성’ 등 이와 관련된 의미들이 파생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도식〉

도식에서 ①번에는 ‘은싸아’ 외에도 심벌로 상징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즉, 인간, 사물, 혹은 관념적 세계까지도 대상이 된다. 이것들을 ②번에서 아딘크라 심벌로 만들고, ②번을 통해 ③번에서는 파생 개념을 문자화하는 것이다. ④번의 경우는 ④번자체가 ①에 속할 수도 있고, ④번을 통해 ②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아딘크라에서는 ③, ④의 경우는 구태여 문자화할 필요가 없다. 이는 이 문화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후에 발생한 과정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문자화 된 후에 아딘크라의 개념은 더욱 확장되어 나간다. ‘실제로 구술문화에서 고도로 예술적이고 인간적 가치를 지닌 강력하고 아름다운 언어적 향연이 산출’²⁷⁾되듯이, 아딘크라의 구술문화의 유연성과 변이, 그리고 문자문화의 기록과 저장의 특성을 모두 지닌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딘크라의 ‘언어적 향연’ 뿐만 아니라, 아딘크라 심벌 자체도 원형의 심벌에서 파생한 또 다른 심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나문화자체에서도 문자문화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해 아딘크라 심벌 가운데서 그 명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다. 아딘크라가 문자를 대신해서 의미전달의 수단으로 현재보다 좀 더 빈번하게 사용될

27) 앞의 책, 28쪽.

당시에는 400개의 아딘크라 심벌들의 의미들이 모두 살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자문화의 도래이후 아딘크라의 기능은 점점 상실되고, 그 가운데 구술로 기록되어 남겨진 것이 100여개, 또 그 가운데서도 60여개 정도가 사전으로 출판되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남아 있는 아딘크라를 통해 여전히 아딘크라의 의미의 전개와 확산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원형에서 파생되어 나온 아딘크라의 다른 버전을 통해 아딘크라의 진화와 발전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증험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아딘크라 심벌이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 아딘크라 심벌의 활용

아딘크라 심벌은 사실상 전통적으로 가나의 옷감 무늬에 많이 사용되었다. 앞에서 밝혔듯이, 아딘크라가 새겨진 옷은 ‘딘크라’의 ‘good bye’라는 의미를 반영하듯 장례식복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사진1〉28)

그러나 아딘크라 심벌은 다양하여 단지, ‘헤어짐’의 의미만을 지니지 않으며, 장례식을 벗어나 결혼식 등 여러 행사에서도 볼 수 있으며, <사진1>에서처럼 일상복에까지 확산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의복의 문양을 넘어서서, 일상용품,

28) <https://www.google.co.kr/search?q=Adinkra&espv=2&biw=1920&bih=947&tbm=isch&tbo=u&source=univ&sa=X&ved=0ahUKEwjZve-syFzMAhXFKqYKHU66CsUQsAQIHw#imgcr=uNeXDzKShyYFM%3A> 사진 참조.

장신구, 집의 장식이나 건축에 있어서까지 아딘크라가 사용되고 있는 범위와 그 종류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게다가 아프리카를 넘어서서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에반

〈사진2〉 ‘에반(Eban)’의 활용

아칸족에게 집은 특별한 장소다. 울타리가 있는 집은 이상적 주거지로 간주된다. 울타리는 상징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분리되고 가정을 안전하게 지킨다. 그래서 울타리는 안전과 보안을 나타낸다. 또한 사랑을 의미한다.²⁹⁾

‘Eban’은 ‘울타리(fence)’를 상징화한 것이다. 이는 아딘크라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살려 울타리를 만든 것이다. 이는 아딘크라 심벌은 과거의 것이지만,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심벌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에반’외에 집과 관련된 또 다른 아딘크라 심벌이 있다. 이는 ‘에반’ 보다 더 구체적인 역사적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데, ‘아반(Aban)’이다.

29) A.D., p.98.

“The home to the Akan is a special place. A home which has a fence around it is considered to be an ideal residence. The fence symbolically separates and secures the family from the outside. It has come to represent safety and security. It also denotes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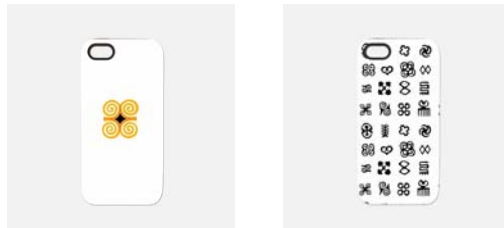


〈사진3〉



‘아반’은 2층짜리 집 혹은 튼튼한 집을 말한다. 이 단어의 유래는 지금의 가나 공화국의 일부인, 예전 노예무역 중심지 골드 코스트(Gold Coast)를 대영제국이 지배하던 식민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골드 코스트에 영국 행정부의 설립은 아프리카 정부 노동자들 가운데 빠띠 부르주아의 출현을 가져왔다. 그 아프리카 부르주아들은 돈을 벌게 되어 튼튼한 1층에서 2층짜리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2층 자리 주택을 ‘아반’이라 불렀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아반’ 사람들이라고 했다.³⁰⁾

〈사진3〉에서 보듯, ‘아반’은 집을 의미하지만, 남성용 단추 장식이나 여성용 목걸이 문양 등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반드시 ‘에반’이 그 의미 그대로 울타리모만 활용되었듯, ‘아반’을 집과 관련된 것으로만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활용은 자유롭고, 유연하다. 이는 다음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사진4〉

30) *Ibid.*, p.61.

<사진4> ‘iPhone 5’ 케이스에 사용된 아딘크라 심벌로 이는 아딘크라가 이미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서, 그 보편성을 인정받으며, 세계적으로, 확산·사용되고 있다는 예를 보여준다. 더구나 아딘크라 심벌은 어느 특정 종교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활용과 사용은 훨씬 자유롭다.




언급했듯이 아딘크라 심벌은 “진화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브루스 윌리스의 말처럼 그 심벌은 활용에 있어서도 진화되고 확장될 수 있으며,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IV. 나가는 말

이상의 소개와 분석을 통해 아딘크라라는 단순히 가나의 아칸족의 삶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인 전체의 정신이 담겨있고, 아프리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딘크라가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심벌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³¹⁾

예로든 이 아딘크라 심벌들은 앞서 살펴본 심벌들처럼 도덕적이거나 교육적이지도, 혹은 사랑을 뜻하지도 않으며, 삶의 깊은 철학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특별한 의미 없이 단순히 자연물이나 사물을 형상화하거나, 왕에 대한 불복종에의 무시무시한 형벌의 도구로 나타나거나, 질투 혹은 보복과 전쟁이라는 인간의 잔인성과 부정적 본능을 여과 없이 상징화한 것도 있다.

요컨대 주지했다시피, 아칸족의 아딘크라라는 하나의 심벌이 하나의 의미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의미도 단 하나의 단어로만 결정되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다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세포분

- 31)  ‘세포우(Sepow)’ 처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형자의 뺨에서 목구멍까지 뚫어버리는 칼’을 형상화한 끔찍한 아딘크라도 있다.
 또한 예의 ‘탐포 베브레(Tamfo bebre)’는 ‘질투’를 상징하며, “적은 고통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딘크라다.
 ‘파 자(Pa gya)’와 같이 ‘전쟁’을 의미하는 것도 있다.
 또 ‘오이아 코크로코(Owia kokroko)’는 태양을 상징화한 것으로 단순히 ‘태양의 위대함’을 알리고자 하는 심벌도 있다.

열을 하듯 그 심벌들은 다른 파생 심벌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의미들을 양산해내며, 확장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아딘크라 심벌의 소재가 되는 대상은 신화·전설·속담 등의 아칸족의 정신에 깃든 무형의 것으로부터 곤충·새·인간·식물·일상적 용품 등 유형의 것으로까지 각양각색이다. 이는 아칸족은 물론 아프리카 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물론 동물이나 식물이거나 그 밖에 아주 보잘 것 없다고 여길 수 있는 모든 자연물들, 그리고 사물들에 까지도 인간과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자체에 정신성과 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자 언어가 존재하며, 이성과 합리를 우선시하는 다른 국가의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칸족들만의 독특함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집단의 사상, 삶의 모습, 교육, 삶과 죽음의 철학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현재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벌이 있다면, 아마도 아딘크라 심벌이 유일하지는 않겠지만, 드문 예가 될 것이다.

아딘크라와 유사한 예로 최후의 상형문자로 ‘동파문자’³²⁾가 주목을 받고 있다.

동파문자는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살아있는 상형문자’로서 제일 오래 된 상형문자 중의 하나이고 인류사회의 문자기원과 발전의 ‘활화석(活化石)’으로 불린다. 동파문자는 독특하고 풍부한 민족문화이고 전통성이 강하며 세계 각국 학자들의 관심과 중시를 받고 있다. 동파문자의 상형성은 광범화 되고 독특한 조형특징은 극도의 예술적 심미성과 창조성을 갖고 있는데 이는 시각디자인 요소로서의 중요한 기반을 두었다.

32)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183830>

19세기 중엽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세상에 처음 알려진 동파문자는 서양인들이 리장을 주목한 계기가 됐다. 1907년과 1909년 리장을 찾았던 프랑스 파커 교수는 1913년 서구세계 최초로 동파문자를 체계적으로 소개한 책을 발간했다. 1922년 식물 채집을 위해 리장에 온 미국인 루크는 동파문자에 심취하여 27년 동안 리장에 머물며 동파경 연구에 매달렸다. 루크가 쓴 <나시어·영어백과사전>과 <살아있는 상형문자 동파경>은 동파문자 연구의 백미로 꼽힌다.

(동파문자)



(동파문자 활용의 예)



중국의 고대 나시족 문명을 간직하고 있는 동파문자로 이루어진 ‘동파경’에는 우주와 인생에 대한 성찰, 하늘과 육지, 현세와 내세에 대한 탐색 세상의 진리 등 철학적 문제에서부터 그 소재로는 새, 귀신, 물고기, 동물, 곤충³³⁾ 등 다양하다. 즉 그들의 종합 백과사전으로 ‘아딘크라 심벌’과 그 소재와 내용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그러나 ‘동파문자’와 ‘아딘크라 심벌’의 차이가 있다면, 아딘크라 심벌은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동파문자가 후에 어떠한 문자로 흡수·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딘크라 심벌은 문자로 발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심벌’로만 존재한다. 아딘크라 심벌은 문자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 혹은 문자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해도, 문자 언어 이상의 것을 함축하며, 앞으로도 ‘심벌’로만 존재할 것이다.

일찍이 이러한 아딘크라의 창조적인 독특함과 그 진화과정 그리고 확장의 가능성을 간파한 아딘크라 사전의 편찬자인 브루스 윌리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아딘크라 스토리는 진화중이고 전개 중이다. 나는 여러분의 안내자로 나와 함께 여러분이 이 여행을 즐기기를 바라고 그 전개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The story of adinkra is ever-evolving and ever unfolding. I hope that you will enjoy the journey with me as your guide and continue the unfolding)”³⁴⁾고 밝힌 바 있다.

3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98865 참조.

이러한 윌리스의 바람대로 아딘크라 심벌은 그의 저서 이후 또 다시 다른 저서가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그 활용에 있어서는 쉼 없는 전개와 진화 그리고 확장을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아딘크라 심벌의 의미와 그 내용의 발견, 그리고 분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가와다 준조, 『무문자 사회의 역사』, 임경택 역, 논형, 2004.
윌터 J. 옹,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 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2009.
데이비드 W. 앤서니, 『말, 바퀴, 언어』, 공원국 역, 에코리브르, 2001.
홍명희, 이경래, 유재명, 김경량, 조지숙, 『아프리카의 신화와 전설-서부 아프리카 편』, 다사랑, 2016.
Willis, W. Bruce, *The Adinkra Dictionary*, Washington : The Pyramid Complex, 1998.
Owuse, Heike, *Les Symboles des Africains*, Éditions Guy Tredaniel, 1999.
Ofori-Mankata, Michael, *ADINKRAHENE King of all the symbols*, Ansa reads LLC, 2014.

- 아딘크라 관련 논문

http://urpjournals.com/tocjnls/14_13v3i1_7.pdf

<http://www.ghanaculture.gov.gh/privatecontent/File/Adinkra%20Cultural%20Symbols%20of%20the%20Asante%20People.pdf>

<http://digitalcommons.unl.edu/cgi/viewcontent.cgi?article=1750&context=tsaconf>

http://digitalcollections.sit.edu/cgi/viewcontent.cgi?article=2690&context=isp_collection

- 아딘크라 역사와 정의

<http://www.fredsmith.com/adinkra.htm>

http://msp.uga.edu/services/adinkra_hall.php

<http://symboldictionary.net/?p=1973>

- 아딘크라 소개와 정보

<http://adinkra.lassanay.net/>

<http://www.encyclopedia.com/article-1G2-3427500013/adinkra.html>

<http://www.csdt.rpi.edu/african/adinkra/index.html>

- 아딘크라 활용

<http://www.divinechocolate.com/us/good-stuff/news/2013/4/adinkra-meaning-behind-symbols>

<http://www.liverpoolmuseums.org.uk/kids/make-and-colour/adinkra/>

<http://theadinkragroup.com/>

<http://www.adireafricantextiles.com/adinkragallery.htm>

https://www.etsy.com/market/adinkra_symbol

- 그 외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1838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98

❖ ABSTRACT

The Adinkra, Ghanaian Philosophy Symbols
- The Expansion of the Speculation System in Adinkra Symbols

Cho, Ji-sook

This paper introduces symbols from Ghana, the ‘Adinkra’, and expands upon the concepts associated with it. In other words, the world view, values and scalability that appear to form philosophical thoughts in everyday life.

‘Adinkra’ are symbols from Ghana in West Africa. Adinkra means ‘goodbye’ or ‘farewell’. There are some 400 Adinkra symbols, but the meanings of the symbols have been lost. The first book on Adinkra is *‘The Adinkra Dictionary’* (1998) by W. Bruce Willis. Adinkra is related to the Ghanaian culture, and represents concepts such as philosophical ideology, history, historical figures, myths, legends, animals, plants, etc. In the old days, because of its meaning-‘goodbye’ or ‘farewell’- Adinkra was generally used for funerals. But today, Adinkra is utilized in a full range of cultural events and activities. Each of the ‘Adinkra’ has various meanings. According to Willis, Adinkra is ever-evolving and constantly expanding. As a matter of fact, Adinkra continues to expand, evolve and develop.

Nevertheless, no books have been published on Adinkra since Bruce Willis (5 May 2016 to the present). Adinkra provides insights into the rich philosophical, education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Africa. Therefore, Adinkra requires evolution, expansion, and research.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Adinkra,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e first is related to God and the powers, the second is related to moral education. The third symbolizes ‘love’ and ‘friendship’. and lastly, the fourth is ‘life’ and ‘death’.

Key Words

Ghana, W. Bruce Willis, Adinkra, symbol, akan

논문접수일: 2016년 08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9월 05일

게재확정일: 2016년 09월 06일